

광주 도시철도·전남 상하수도에 지방재정 멎는다

5년간 광주 3447억, 전남 2966억 쏟아부어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광주시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손실을 매우느라 지난 5년간 3478억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재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도 같은 기간 상·하수도 설비 등에 총 2966억원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10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광주시는 8개 지방공기업에 3478억원, 전남도는 22개 지방공기업에 2966억원을 지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광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6%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였으며, 전남도는 9.0%로 15위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의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인 12.2%보다 높았으며,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적자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 유형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는 도시철도 3447억원, 상수도 6억원, 하수도 25억원, 도시개발 및 기타공사 0원 등 대부분 도시철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적자의 주원인이 방만한 운영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건립중인 2호선에서는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과 운영계획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예정치는 전국 도시철도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당기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 도시철도는 방만한 조직 운영, 실수요자 예측 실패, 전국 최고의 무임승차율 등으로 손실이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시철도공사 종사자 1명당 연간 수송인원을 보면 전국 7개 도시철도 중 서울메트로는 12만1081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광주는 겨우 3만1359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지난 5년간 순손실액은 1611억원이었으며, 광주시는 같은 기간 도시철도 운영적자 보전 명목으로 1853억원, 건설부채 상환 등으로 1595억원 등 총 3447억원을 지원했다.

2000년 이후 개통된 전국 도시철도 예측 이용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비교에서도 광주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26만1265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3만112명에 그쳤다. 실이용자 비율이 겨우 11.5%에 머무

른 것이다. 반면 대구(81.8%), 서울메트로(70.5%) 등은 예측이용자 대비 실이용자수가 근접했다.

광주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인원도 전국 평균을 압도했다.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율은 15%였으며, 광주는 두 배 이상 높은 31%로 나타났다. 승객 3명중 1명이 무료승객이 셈이다. 광주의 무임승차자 중 79%는 경로우대자였으며, 나머지는 장애인이었다.

예정치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광주의 도시철도 적자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시철도가 없는 전남은 상·하수도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5년간 상수도 709억원, 하수도 2257억원 등 총 2966억원에 이르는 지방재정이 상·하수도 설비 투자 및 결손보전비로 지원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근혜정부 성적 '미'

2년 국정수행 평가 외교·통일 '양호' 경제 '미흡'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는 외교·통일분야는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상현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신을 명지대 교수, 유용화 시사평론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정근기 흥익대 교수,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등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청취한 결과다.

◇총평=지난 2년에 대해 '수우미양'가 평점을 부각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미'를, 1명은 '양'을 줬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일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실제 성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성과 부재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 및 문건파동 등에 따른 국정표류(박상현, 이택수) ▲정책과제 납발 및 혼선(김형준, 정근기) ▲정치권과 소통 부재 및 인사 난맥상(유용화·김철근) 등이 꼽혔다.

◇잘한 분야 못한 분야=전문가들은 '내치'보다 '외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통일대박론과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밀원관계를 구축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다만, 대일관계 개선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정책혼선, 소통 미흡, 인사실패 등 3가지를 잘못된 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언=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정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크고 재원이 마련된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배종찬), "3~4개 의제로 압축해 성과를 내야 한다"(박상현)고 강조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약수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황태순),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보수정부가 보수가 아닌 것처럼 해선 안 된다"(김철근)는 조언도 뒤따랐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내달 1~9일 중동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한다.



청와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기간 양자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지평을 중동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달 1~3일 첫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건설·플랜트, 교통·철도,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달 3~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신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방안, 에너지·원전, 건설·플랜트, 투자,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박 대통령은 내달 4~6일에는 세 번째 방문국인 UA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폭넓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내달 6~8일에는 중동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를 방문한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JP의 눈물’ 22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인 박영옥 씨의 빈소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눈물을 흘리다 딸 김예리 씨가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JP, 마지막 입맞춤 박영옥 여사와 ‘굿바이’

인고 부부 소문났던 김종필(JP) 전 총리가 지병으로 별세한 부인 박영옥(86) 여사에게 지상에서 마지막 키스를 하며 떠나보낸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1일 고인의 마지막 길을 의료진을 모두 물리고 혼자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직후 본인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이면서도 매일 병상을 지켜온 김 전 총리는 의료진이 임종이 가까워왔음을 알리자, 모두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한 뒤 마지막까지 부인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켰다고 조용치 운영회 사무총장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부인에게 마지막 입맞춤했고 이어 곧바로 고인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64년전 아내에게 선물한 결혼반지를 목걸이에 매달아 떠나는 아내의 목에 걸여줬다고 한다.

김 전 총리는 임종을 지킨 후 과거 결혼식 당시 고인의 작은아버지이자 자신의 상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혼 선물로 황소 한 마리를 보낸 일화 등을 회상하며 "허무하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고인은 김 전 총리가 걸여온 풍운의 정치 인생을 한평생 운동으로 지켜온 정치권의 여결 중 한명으로 꼽힌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엔 김 전 총리가 부정축재 혐의에 연행되자 직접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 자매 지간이지만 교류가 그다지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줄속

위원 장기 연임, 중복 활동 수두룩

10곳은 3년간 회의 한번도 안열어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들의 장기 연임은 기본이고, 특정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여성위원이 일정비를 참여해야 하는 규정도 무시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위원회는 119개에 당연직 500명, 위촉직은 1709명이

며 법령에 의한 것은 72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른 것은 47개다.

시는 최근 산하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1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 수가 797명, 2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한 위원도 268명에 달했다. 3회 이상 연임한 위원도 43명이 됐다.

이들 위원 중 55명은 4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나 '직업이 광주시 위원 이냐'는 논쟁도 받고 있다. 특히 상당수 위원이 대학교수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도한 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의 질'마저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체 위원 중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은 4분의 3 이상인 75.4%를 차지했으며 시민단체(14.5%)나 일반인(6.4%)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여성 참여비율은 27.5%에 불과했으며, 40% 미만 위원회도 55개나 됐다. 여성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용역과제심의위 등 4개에 달했다. 관련법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도 엉망이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는 곳은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였으며, 서면으로만 운영 중인 위원회도 사전 제재 영향성 검토위 등 5개나 됐다. 기능이 중복됐거나 비슷한 위원회로 통합해 대상인 위원회도 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입학상담문의 GOChina 중국 전문 입학업체 www.gochina.co.kr 233-9582 (중)구오팔리

1636 결코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홍 김사연' 양이 전국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올림픽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